

안녕·풍요 기원 '필봉정월대보름굿'

임실군, 28일 강진 필봉마을서 기굿·당산제·달집태우기 등 신명난 판굿 선사

임실군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임실필봉농악의 본고장답게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45회 필봉정월대보름굿'이 오는 28일 강진 필봉마을에서 개최된다.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마을의 안녕과 공동체의 화합을 다짐하는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이다.

필봉정월대보름굿은 이러한 전통의 원형을 45년간 꾸준히 계승·재현해 온 대표적인 마을 전통문화 축제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의례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임실군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임실필봉농악의 본고장답게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45회 필봉정월대보름굿'이 오는 28일 강진 필봉마을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새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굿을 시작으로 당산제, 샘굿, 마당밭이, 판굿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필봉농악 특유의 힘찬가락과 역동적인 진풀이, 치밀하게 짜인 판구성은 다른지역 농악과 구별되는 강점이다.

평과리·장구·북·징이 어우러진 정단위에 상쇠의 리드가 더해지며 현장을 압도하는 에너지와 공동체적 흥을 이끌어 낸다.

임실필봉풍물굿은 예술성과 완성도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느림과 빠름을 넘나드는 장단의 긴장과 이완, 상쇠의 즉흥성과 연희자들의 유기적 호흡, 짜임새있는 진풀이 등은 필봉굿만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행사의 백미는 관람객들의 소망을 담은 소지를 매단 달집태우기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속에 묵은 액운을 씻어내고 새해복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식으로 달집이 타오른 뒤에는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는 대동놀이 판굿이 펼쳐지며 화합의 절정을 이룬다.

군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민군수는 행사에 앞서 "필봉정월대보름굿은 우리 임실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자, 이웃과 정을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며, 활활 타오르는 달집과 함께 지난 액운을 모두 날려 보내고, 임실군민과 방문객 모두의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순환 기본소득 본격 출발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

순창군이 26일 농어촌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지급하며 지역순환형 기본소득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군은 사전 신청과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계기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첫 지급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읍·면 대표에게 상징적으로 첫 지급 카드를 전달했다. 주민들과 함께 "월 15만 원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순창"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정책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첫 지급과 함께 의미 있는 기기도 이어졌다. 금과면 호치마을에 거주하는 여진구 씨가 8인 가족의 농어촌 기본소득 1회차 수령액 전액인 120만 원을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소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어촌 정책 실행의 전에서 국가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순환을 동시에 설계한 구조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설



계돼 매월 일정 규모의 소비가 지역 상권에 유입되는 구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고, 영세 상권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면 단위 순환구조 설계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주민이 기본소득으로 실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생활서비스 수요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역 실행조직과 예비 창업주에게 제공해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설계는 행정이 책임 있게 추진하고, 실행 과정에서는 지역의 참여를 확대해 기본소득이 일회성 재정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반 정책으로 정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첫 지급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지역 소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어촌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수요 기반 데이터 축적과 면 단위 실행체계 구축을 통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차원의 농어촌 정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원어민 1:1 화상 외국어 교육 수강생 모집

남원시가 시민들의 어학 실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10일부터 '2026년 원어민 1:1 화상외국어 교육'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1일 개강해 7개월간 진행되며, 영어·중국어·일본어 3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원어민 강사와 수강생을 1:1로 매칭해 실시간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므로 학습자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회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남원시민이며, 수강료는 월 2만 원으로 책정해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수업은 사전 레벨 테스트를 거쳐 본인의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 운영 방식은 월·수·금(화당 20분), 화·목(화당 30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67명(영어 142명, 중국어 20명, 일본어 10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남원시 화상 외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정원 마감 시까지 접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 11일까지 지역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와 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임실군 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양봉 과정, 흑염소 과정 두 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별 30명 내외,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총 60시간, 15회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농촌진흥청, 대학교수, 선도농가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이론과 실습, 우수 농가 현장 견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실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스마트경로당 온택트 콘테스트 결승전 열려

남원시는 26일,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온택트 콘테스트 결승전을 개최하고, 경로당 중심의 비대면 여가·소통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충분한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승전은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자는 시청 자하 스튜디오, 참가자는 소속 경로당에서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했으며, 쌍교동 경로당(축환동), 농원마을 경로당(금동), 장항 경로당(장항), 제천 경로당(주생면), 외평여성 경로당(주천면),



진목여성 경로당(보절면) 총 6개의 경로당이 결승전에 참여했다. 또한 결승 참여 경로당이 속한 읍면동의 다른 경로당도 스마트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함께 시청하며 응원에 참여해, 경로당 간 '연결'과 '함께'의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이번 콘테스트는 예선과 본선 단계부터 예상보다 반응이 매우 뜨거워 현장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라 결승전에서도 그 열기가 그대로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응원전을 별도로 준비해 단체 응원을 펼쳤으며, 일부 팀은 단체로 웃을 맞춰 입고 참여하는 등 '대회'라기보다 '다함께 즐기는 축제' 같은 장면을 만들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순창군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자동차 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 분야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1~2년간의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된 포인트는 연 2회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분야는 참여 전후 자동차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7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신규 등록 또는 재참여 신청 후, 문자로 안내받은 URL을 통해 계기관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 산내면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 성료

남원시 산내면 와운(臥雲)마을에서는 26일 지리산의 안녕과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500여 년간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전통이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영물인 '할매소나무(천연기념물)'와

'할아씨소나무'에게 매년 음력 1월 10일 정성껏 제를 올리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왔다.

이번 행사는 '구름도 쉬어간다'는 와운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진행, 산내 농악단의 흥겨운 타율림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마을의 평안과 주민의 무병장



수를 비는 제례 의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나선다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우 조깅 교실 △한약 기공체조 교실 △시니어 디지털 교실(스마트폰) 등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신체활동 증진

과 디지털 역량 강화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건강관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N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